

전쟁·평화·교착...우크라이나 운명 이번주 갈린다

16일, 미국 예상 러시아 침공일
20일엔 벨라루스 합동훈련 종료
훈련 마친 러시아군 행로 추측
독일 등 외교적 역할도 주목



러시아로부터 침공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13일(현지시간) 민간인들이 열성 우파 단체가 마련한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이번주(14~20일·현지시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각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가운데 '결정적'인 날짜가 하나둘 코앞으로 닥쳐 오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13일 "전쟁, 평화, 교착상태 등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앞으로의 한 주에 달렸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한 주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은퇴한 미국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인 이인 켈리 노스웨스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AP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이 바로 이번주 수요일(16일)이다. 이 첩보를 근거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 민간인뿐 아니라 외교관 직원들까지 철수를 명령한 상태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10여개국도 우크라이나의 자국민을 향해 철수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 국경과 맞닿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가 진행 중인 합동 군사훈련은 일요일인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합동훈련을 핑계로 우크라이나 북쪽에 군사 자원을 대거 배치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훈련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다. 그러나 러시아는 훈련을 마친 뒤 군이 자국 기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훈련이 종료됐을 때 러시아군이 어디로 향하는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 의중이 드러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같은 20일 폐막한다. 이번 올림픽은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친밀한 중국에서 열리고 있어 러시아의 침공을 일부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가 올림픽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4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음날인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 이같은 국내외의 비판을 일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근시일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숄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작년 말까지 독일을 이끌며 러시아를 거침없이 상대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 자주 비교됐다.
독일 뮌헨에서 18~20일 열리는 국제 안보 콘퍼런스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의에는 캐럴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유럽 최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담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세계 코로나 확산세 주춤 지난주, 전주보다 19% 감소

지난 한 주 전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 19%와 1%씩 줄었다고 UPI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최근 7일간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605만3879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가 4억1166만 354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만2744명이 증가해 전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583만1689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확진자, 사망자 증가폭은 이전 한 주간에 비해 각각 19%와 1% 감소한 규모라고 UPI는 전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0일 380만 373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해 이날 12일 188만4721명까지 내려왔다.
UPI는 작년 11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일 신규확진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으나,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은 그런 추세가 꺾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이동 제한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러시아와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몇몇 주요 국가들은 지난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독재자 아들' 마르코스 대선 지지율 60% '압도적 1위'

로브레도 부통령 16%에 그쳐
부통령 후보 두테르테 딸 1위

올해 필리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14일 외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스 아시아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 마르코스는 6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해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16%로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마르코스와 로브레도는 각각 53%, 20%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른 후보의 경우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와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이 각각 8%로 동률을 보

였고 판필로 라손 상원의원은 4%에 그쳤다.
부통령 후보의 경우 마르코스와 러닝 메이트를 이룬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43) 다바오 시장이 50%의 지지율로 빈센트 소토 상원의장(21%)을 29%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한편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제기한 청원을 잇달아 기각했다. 필리핀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작년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계속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마르코스가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을 거론하면서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올해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한다.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집권하다가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자 하와이로 망명해 3년 후 사망했다. /연합뉴스



재선 축하 박수 받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왼쪽 연단 앞) 독일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를린의 연방하원 부속건물인 파울리베하우스에서 열린 연방 총회에서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재선된 뒤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독일 대통령을 뽑는 연방 총회는 연방하원 전원과 16개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IAEA 조사단 방일 연내 중간보고서 발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14일 일본을 방문했다.
IAEA 조사단이 이날 경제산업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IAEA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18일까지 일본에 머물러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고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조사단은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시찰하고 방류할 오염수의 상태, 처분 절차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IAEA 안전 기준에 근거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단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도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겸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했다. 방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IAEA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사단의 평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